

가을향연 시립합창단과 함께 포천시립합창단제3회 정기연주회

포천시립합창단은 오는 10월 6일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제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포천시가 주최하고 포천시립합창단이 주관하는 이번 연주회는 창단 2년째를 맞는 시립합창단이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준비한 찬송의 멜로디를 시민들에게 선사하게 된다.

이번 공연에는 수준높은 예술 가곡과 오페라 합창곡을 포함해 1950~70년대의 대표적 가요와 유쾌한 영화 주제곡 등이 선보여질 예정이다. 특히 피아니스트 박호성씨와 재즈보컬리스트 강원석씨의 특별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연의 지휘는 경북대학 흥예선 교수가 반주는 손수연 씨가 하게 된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전국유림 및 한학자 참여로 시문향상 계기

한음 이덕형선생 추모 전국한시백일장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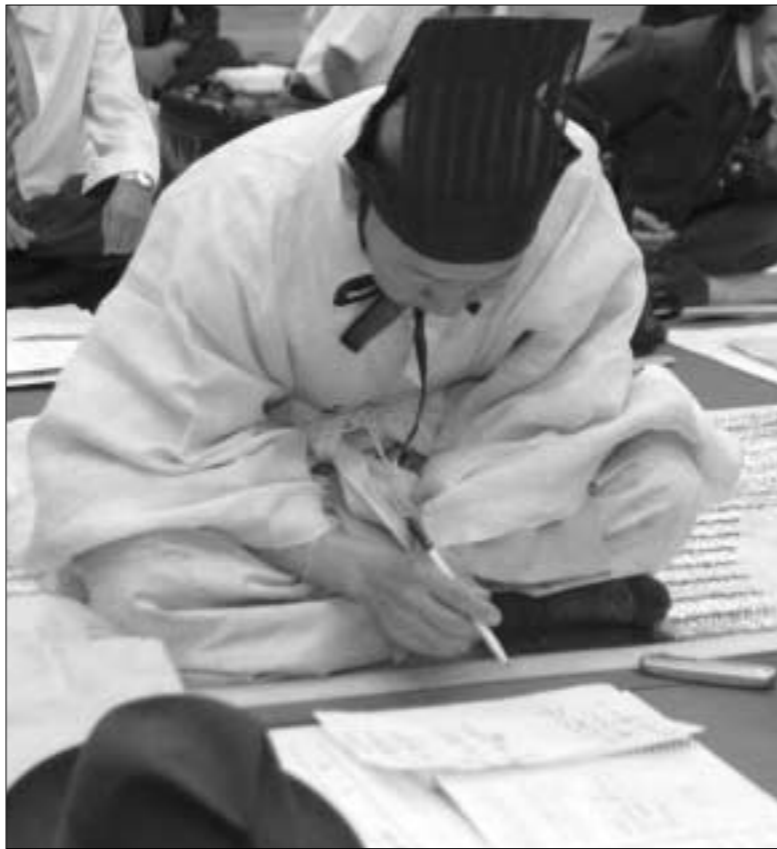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포천시, 포천시의회, 포천향교, 유도회, 포천시지부, 포천한시사에서 후원한 가운데 한음 이덕형 선생 추모 전국한시백일장을 지난 28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백일장은 고조흥 국회의원과 박윤국 시장 등 시단위 각급기관 단체장과 문화원 임·회원, 전국의 한학자 등 한시동호인 2백여명이 참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선조때 명재사인 한음 이덕형 선생을 추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이만구 문화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시는 우리생활의 일부로서 우리의 정신문화와 시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말하고 오늘날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선현들의 고고하신 열이 담긴 시문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욱 계승 발전 시켜 나갈 것과 동시 한음 선생의 유국충정을 추모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과 수준 높은 작품을 작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시형은 철원윤시, 압운은 天·年·賢·邊·全으로 했으며 고선시관은 사계권위자를 초빙 업선했으며, 전국의 유림 및 한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시문 향상의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포천시 여성유도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전통차시연회를 개최, 참가자들에게 인기를 끌었으며, 광주시 문화원에서 참가자에게 기념



포천문화원은 한음 이덕형 선생 추모 전국한시백일장을 지난 28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개최했다.

품 증정 및 막걸리 등을 제공 포천의 이미지를 높였다.

대회결과 입상자는 장원 1명, 차상 2명, 차하 3명, 참방 10명, 가작 10명 등 26명이 입상했다.

한편 포천문화원에서는 시집을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장원 김두현(경북 안동시) ▶차상 김점문(대구광역시 동구) 외 1명 ▶차하 류기찬(용인시 구성읍) 외 2명 ▶참방 김우영(대구광역시 서구) 외 9명 ▶가작 박재환(경북 경주시) 외 9명.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韓國의 선비정신 · 10 임금도 '꾸짖은' 대쪽선비



리효중
포천한시사 대표

남명조식(南冥 曹植)·1501(연산군7)~ 1572(선조5)

본관은 창령 지는 건중 호는 남명이며 지평 언현의 아들이다. 1501년(연산군7) 경성좌도 예안(경북 안동)에서 퇴계 이황이 태어나고 경성우도(경북 합천)에서는 남명 조식이 태어났다. 16세기 기호학과, 영남학과 형성기에 두 선비는 영남학파의 두 거봉으로 같은 해 태어났다. 퇴계가 경성좌도 영수라면 남명은 경성우도 영수이다.

남명은 일찍부터 강인한 의지를 지키고 심성을 수양하는 공부에 힘썼다. 자기 수양의 두가지 방법은 꿰어 앉아서 물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두고 밤을 세우는 일과 허리에 방울을 차고 다니는 일이다. 그릇의 물이 흔들리지 않게 받쳐 들고 밤을 세움으로써 자신의 뜻을 가다듬고 걸어 다닐 때마다 허리춤에서 나는 방울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뜻을 일깨우는 것이었다. 또한 꽃을 일깨우는 길을 택 앞에 받쳐두고 한 순간의 밤삼도 허락하지 않는 경의 수양에 시종일관 매진하였다.

16세기는 사회적으로 성장한 사림과 기성 정치세력인 훈구파의 대립과 갈등 속에 연속적으로 사회가 발생한 시기이다. 한 세기에 걸쳐 정치적 경제적 특권권을 향유하면서 귀족화한 훈구파와 사회개혁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부상한 사림파와의 격돌은 언제나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회로 결말이 났다. 정

권이 훈구파에게 넘어가면 사람의 일부는 희생되고 일부는 귀양가게 되어 학문을 연마하고 제자를 키우면서 때를 기다리게 된다. 향촌 사회에서 때를 기다리던 사림이 다시 중앙 정계에 진출하게 된 것은 종종 후반기에 이르러서이다.

퇴계는 1534년 34세로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로서 사대부의 길을 걷게 되고 남명은 1539년 39세로 초야에서 학문에 전념하여 명망있는 학자로 인정받아 유일로 참봉벼슬이 내려왔으나 나가지 않았다.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해온 당대 성리학의 석학인 회재 이언적이 그의 명망을 듣고 만나길 청했지만 그는 벼슬길에 나가있는 사람과 만날 뜻이 없다고 거절했다. 그 만큼 신념에 파묻혀 학문하는 고고한 선비로서 출처(出處·벼슬길을 통해 세상에 나서는 일과 물러서는 일)에 엄격한 지조를 지켰던 것이다.

1551년(명종10) 51세에 정6품직

인 중부시 주부에 임명되었지만 사양하고 1553년 53세에 다시 정6품의 벼슬을 내렸으나 역시 사양을 한다. 성균관 대사성으로 있던 퇴계가 편지로 간곡하게 요청했지만 남명은 눈병을 핑계로 거절한다. 이때 퇴계와 남명이 주고받은 편지에서는 서로에게 보내는 애정과 존경의 정이 자못 절절하다. 퇴계는 유일로 임명된 벼슬이니 몸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며 남명에게 벼슬길에 나오기를 원했으나 남명은 하늘의 복두성처럼 우러러 사모하는 그대의 요청에 따를 수 없는 이유는 나의 경륜이 없고 식견이 무지몽매해서이다 라고 애정과 존경이 넘치는 편지로 거절했다.

1555년(명종10) 55세의 남명 조식에게 다시 벼슬이 내려졌다. 삼가(합천)에서 가까운 단성(산청)현감이었다. 서울로 올라오라는 것도 아니고 이웃 고을의 현감을 하라는 것이니 이번에는 사양하지 못할 거라며 내린 벼슬이 있었지만은 사양하고 단성소라는 상소를 올리며 단호하게 거절한다.

상소문에서 '진실로 한마디의 말이라도 들어서 만에 하나 임금님의 덕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면 구급이라는 두 글자로서 나라를 부흥시키는 한 마디로 삼짱소나다' 라고 적었다. 말 한마디로 목숨을 날릴 수 있는 절대 군주 앞에 일개 처사에 불복한 남명이 담당하게 말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포천문화사랑 가을호 발간



포천문화원이 발행한 포천문화사랑 가을호(총권 제6호).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지난 20일 포천문화사랑 가을호(총권 제6호)를 발간해 문화원 회원 및 일반인에게 배포하고 있다.

포천문화사랑 가을호의 표지는 동아대학교 예술대학장을 역임하고, 현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광우작가의 '자연+인간+우연'의 조각품을 담았으며, 김병수 포천중문과과대학교 총장의 '21세기 포천시'란 제목의 제언을 비롯해 이효종 전 향토사연구소장의 '양문대신 이서구' 소개, 이종용 이신경정신과의원의 건강칼럼 '잡에 관한 오해와 편견들', 이종훈 문화재해설위원의 육계칼럼 '공(公)과 사(私)에 대하여', 이석구 편집장의 감동의 드라마 인생 '임관영' 씨 조명, 손진홍 편집위원의 문화탐방 '다연회(茶緣會)를 찾아서', 박동규 영북노인대학 학장의 수필문학 당선작 '고향의 매미와 반딧불 이야기', 강돈희 마흔문화회 사무국장 겸 김신희 마흔문화회 회원의 포천문에서, 왕방초님의 생각하는 시, 문화행사 이모저모 등이 수록됐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2006년 포천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지원신청

10월 19일까지 문학, 미술 등 8개 분야

포천시는 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는 단체 및 개인들에게 발전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2006년도에 시행하는 사업 및 활동으로, 공연과 전시를 포함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연구, 창작, 보급 활동을 말한다.

문화예술 창작사업은 문학, 미술, 사진,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대중예술, 전통문화연구 등 9개 분

야에서 지원 가능하며, 시민의 문화예술 직접 참여기회 확대와 관련해서는 앞의 9개 분야 중 전통문화연구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1개 단체 및 개인에게 1개 사업을 지원하며 지원한도액은 500만원이다. 주요 심의기준은 ▶포천시민수혜우주의 문화·예술 활동인지의 여부 ▶소요경비의 50% 이상을 자체 확보했는지 여부 ▶기타 활동

실적 등이다.

접수기간은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며,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이 결정된다.

지원절차와 원칙, 부문별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 홈페이지(www.pcs21.net) 고시·공고란에 나와 있으며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회원명부 등의 양식도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방문과 우편접수 모두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포천시청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예술부서(031-538-2783)로 문의하면 된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동, 천연염색 체험 프로그램 마련

포천동(동장 연재순)은 지난 26일 동사무소 광장에서 30여명의 청소년 및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천연염색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천연색(황토)을 이용한 천연염색 체험 프로그램을 참가자들은 준비해온 천(티)과 손수건 등에 염색을 해보는 등 우리나라 전통 염색문화를 경험하게 됐다. 한편 이날 천연염색은 테마 체험농원 트로이목마 김진덕 대표가 지도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동은 지난 26일 동사무소 광장에서 30여명의 청소년 및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천연염색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44)

시인 '채희문' (詩人 蔡熙汶)

1950년대에는 '독문학도이자 번역작가'로, 60년대에는 학원사, 한국일보사 민원 기자로, 7·80년대에는 한국일보사 증권간부로, 80년대 이후, 시인이자 저술가로, 문단의 '신문학계'의 중심으로 맹활약을 했던 채희문님은 포천출신의 독일어문학의 능통한 시인이자, 신문인이자, 영화평론가이자, 여행가이며 저술가이다.

채희문님은 1938년 4월 13일 군내면 직두리(피머리)에서 태어났다. 다시 말해서 포천 피머리 '채씨 문중의 영재'라는 얘기가 된다. '한국일보' 주간, '중앙여성' 차장, '일간스포츠' 편집부장, 도서출판 '예원문화사' 상임고문, 이사, 공보부 정부간행물 제작소 전문위원, 월간 '문학' 주

전 신인작품상 수상 작가(시인), '외대문학상' 수상작가 등이 채희문님의 경력이다.

잡시 채희문 시인의 저술활동을 살펴보기로 하자.

▶'세계명작 영화 백년' ▶시집 '밤에 쓰는 편지' ▶시집 '우이동(1~19권)' ▶시집 '두사람의 롯데' →에리히케스터너 작, 채희문 옮김 ▶'위쉬 푸쉬' →W. 보르헤르트 작, 채희문 옮김 ▶'가르동과 밤과 별' →보르헤르트 작, 채희문 옮김 ▶'영화시집' '추억만나기' ▶시집 '어느때까지니가' ▶북한기행(1)·(2)→소설 및 에세이 ▶시집 '뿌린 대로 거두리라' ▶시집 '가을 비' ▶시집 '어떤 무분별' ▶시집 '기막힌 아이디어' ▶'개미용사' ▶'모르는 여인의 편지' ▶'채수없

는 날' ▶'슬픈 이종주' ▶'동방 예외적국의 노메너' ▶'황혼별' ▶'작은 마을의 큰 축복'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분수를 아는 삶' ▶'문밖에서' →보르헤르트 작, 채희문 옮김 ▶시집 '가을 레슨' ▶로저만델의 '히틀러의 최후' →채희문 역 ▶세계유아문학대전집 등이다.

외국어대학 독어 독문학과 재학 중, 이미 독일문학을 섭렵하였으며 독일의 문호 괴테의 '파우스트'를 1학년 입학하자마자 연구하였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외대 1학년 시 번역한 '문밖에서'는 전후, 독일의 젊은이들을 대표한 청년작가 '볼프강 보르헤르트'(26세 죽)의 작품으로 치열한 반전주의(反戰意識)로

일관된 그의 작품세계와 전쟁이 남긴 불행과 절규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부단히 진실을 추구하는 순박하고도 어진 인간상을 만나게 된다.

채희문 시인이자 언론인의 생활관이나 사상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지성인의 혼을 읽을 수 있어 재미있는데 바로 채희문님의 시집이나 번역서나 저서가 이를 웅변하고 있다. 토해내듯한 절규가 번역서에서 발견되었다면, 시집에서는 인간애와 지혜 그리고, 꿈과 애정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다. 특별히 영화와 시문(詩文)의 접합(接合)이 묘한 영혼과 사랑의 흐름을 얘기하게 한다.

애항시 '포천이어 그대는', 산문 '내가 살던 고향'은 고향 사랑의 뜨거움을 노래해 감동을 준다. 채희문 시인 같은 지성인이 포천을 사랑하고 노래하는 한 내 고향 포천은 영원히 아름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채희문의 대표작 시 '가을레슨'은 천관산 자락에 있는 채 시인의 문학비에 새겨져 전남 장흥시의 명물(名物)로 화제가 되고 있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운악산으로 가을단풍 구경오세요”

제4회 운악산 단풍축제 내달 15~16일 개최

아름다운 가을단풍으로 명성이 높은 화현면 운악산에서 등산대회와 공연, 전시회가 어우러진 단풍축제가 열린다.

화현면(면장 강승복)이 주최하고 화현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남)가 주관하는 이번 "제4회 운악산 단풍축제"는 10월 15일과 16일 이틀간 화현면 화현6리에 있는 운악산 입구 광장에서 펼쳐진다. 축제기간 동안 포천시립민속예술단의 국악공연과 7080 보컬그룹 공연, 난타공연, 서울시 노원구 스포츠댄스 시범, 초등학교 풍물놀이 및 바이올린 합주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 전통술, 잣막걸리, 포도 등 지역특산물이 전시·판매된다.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는 등산대회와 더불어 경기 5와 중의 하나로 특히 가을철 아름다운 단풍이 유명하며 곳곳에 풍부한 수량의 폭포와 기암괴석을 갖추고 있다.

유적지로는 공예성터, 궁궐터, 신선대 등이 있으며 특히 주봉인 만경대를 둘러싸고 커다란 바위들이 봉우리마다 구름을 뚫고 솟아있어 신비감마저 불러일으킨다.

화현면은 운악산의 절경과 단풍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 단풍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아름다운 가을단풍으로 명성이 높은 화현면 운악산에서 등산대회와 공연, 전시회가 어우러진 단풍축제가 내달 15일과 16일 이틀간 개최된다. 사진은 가을 단풍이 물든 운악산 전경.

초대 漢詩

初秋即事吟 (초추즉사음)

畏火西流退暑天(오화서류퇴서천)
의화서류하여 더위가 물러가니

經炎百果亦豐年(경염백과역풍년)
더위를 겪은 백과가 또한 풍년 풍년일세

生涼換尋新衣襪(생양환순신의복)
시원한 바람이 나니 의장에서 가을 옷으로 가리라고

長夜初親 燈邊(장야초친등변)
긴밤에 등잔을 켜고 공부하기 좋구나

四野黃金佳纓秀(사야황금가수수)
사방전답에는 황금색이 익어가고

三秋雨霽淡雲連(삼추우잠담운연)
하늘 비가니 맑은 구름이있도다

金風吹爽聲 蕭瑟(금풍취취성소울)
추풍이 상쾌하게 부니 그 소리 소울하고

從此農科收穀全(從此農科收穀全)
이로부터 농촌은 추수하기 비 배비다



이창수
군내면사무장 유도회 회장

초대 詩

내 나무

내 나무는 소나무예요
바늘처럼 생긴 잎을 가지고 있지만
따갑지 않고
늘 변함없는 푸름이지만
지루하지 않고
내 할머니처럼 자애로운
웃음과 엄함을 함께
담고 있는 소나무

내 어머니처럼 일련단심
나 하나만을 위해
언제나 다정하게 미소 짓던
그 마음은 해바라기

내 동물은 코끼리예요
커다란 몸집은 긴 속눈썹과
큰 눈 때문에
위화감을 주지 않고
긴 코와 큰 귀는 지구의 동물이 아닌
먼 우주의 신비로운 방문객
내 아버지의 소리 없는 가르침처럼
나를 꿈꾸게 하는 코끼리



이혜숙
림인형공예가